

함께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례 12:15

419

2020.1.12

신년특집호

2020년 주님의교회 표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II)
신명기 6:5~7

오늘의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_ 아가 2:10

오늘의 주요기사

- 2-3면 담임목사 신년 인터뷰
- 4면 교회 소식
- 5면 당회 결의문
- 6-7면 신임 교역자 소개
- 8면 아기사들이

교회일정

- 1/12(주일) 정기당회/신년서리집사교육1
- 1/15(수) 4/4분기 제직회
- 1/19(주일) 제직수련회/신년서리집사교육2
- 1/22(수) 공동의회
- 2/5(수) 교구연합 수요기도회
- 2/8(토)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유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집 : 홍보출판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II)

2020년 교회 표어는 다시 “가정”입니다. 주님의교회 어린이들이 그린 다양한 가정의 모습들, 모두 저마다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신년특집 | 담임목사 인터뷰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2020년 교회 표어는 작년에 이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II)”로 결정되었다. 2020년 1월 7일, 새해 사역 준비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바쁜 시간을 쪼개어 만든 한 시간 동안, 김화수 담임목사는 까다로운 질문도 마다하지 않고 부임할 때와 다름없이 온화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함글함글**

올해는 부임하신 지 3년차를 맞으시는 해입니다. 부임하실 때 여러 소망이 있으셨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 소망이 실현되었는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그렇게 느껴지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2017년 12월에 부임했으니 햇수로 4년 차가 됩니다.(모두 웃음) 제가 주님의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후, 교우들이 가장 자주 들은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신비주의자도 아니요, 오순절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일상 속에 많이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사실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해서 사역의 핵심메시지를 두리몽실 표현하고 사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을 말씀을 통해서나 인사말을 통해서 자주 나눕니다. 그런 까닭에 믿음은 간직을 넘어서는 삶이요, 그 삶은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우들이 우리 목사님은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공동체가 공유하기를 소망하며 사역한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한두 해만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함없이 품어야 할 것이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걸고서 앞장서 사역하는 저 자신에게도 ‘믿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겨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바른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앞장선 자로 덜 민망하도록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임을 신앙의 핵심가치로 삼고 살아가기까지는 시간도 실패도 실수도 좌절도 고난도 더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미흡할 수 있겠지만, 이 메시지가 구호만이 아니라 삶으로 무르익어갈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고서 앞장서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2020년 새해에도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II)”를 주제로 정하셨습니다. 동일한 주제를 새해 표어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주제를 새해 표어로 정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시대적 상황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의식하고 노력하고 씀씀이 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의 교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주제로 공동체가 함께 나아감으로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의 교사로 살아가는 용기도 불어넣고, 격려와 칭찬도 하고, 훈련도 하고자는 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올 한 해를 더 살아가면 적지 않은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사로 살아가는 애기들이 들려지고 나눠지리라 기대합니다.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II)”와 관련하여, 지금 진행하시는 사역과 말씀이 많은 부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보통의 가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이혼 가정, 다문화 가정, 무자녀 가정, 일인 가정 등 여러 다른 형태의 가정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가정에 대한 목회 방향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전술한 다양한 가정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과 교회에서 개설하는 강좌들이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전술한 가정들에 대해 말씀을 통한 나눔을 하길 원했지만, 직접 표현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표현을 들으면서 상처를 받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앞으로는 보다 더 적극적

으로 다양한 가정에 속한 분들이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애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2기까지 수료자가 배출된 아름다운 부모학교에서는 지난 학기 강좌에 조손가정을 비롯해서 이혼 가정 등을 포함해서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자 중에 젊은 세대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수료하였지만 다양한 가정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교회의 강좌가 개설되더라도 전술한 가정들의 현실적 참여도는 소극적인 편이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며 전술한 가정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함께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도록 사역하고자 합니다.

“유유청청 리바이벌”이란 슬로건을 걸고 다음 세대의 신앙회복과 영적부흥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유유청청 리바이벌” 둘째 해를 맞아 다음세대에 대한 목사님의 사역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유·청·청’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주 낯선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학교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맨 앞의 ‘유’는 유치부 아래의 미취학 아이들인 유아 숲의 유, 그 다음의 ‘유’는 초등학교인 유소년 숲의 유, 앞의 ‘청’은 중등부 고등부인 청소년 숲의 청 그리고 그 다음의 ‘청’은 대학 청년들인 청년 숲의 청인데, 그 앞 글자를 따서 ‘유유청청’이라고 부르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유유청청이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소망하며 한 해를 달려왔지만 이제 겨우 서로서로를 이어주는 징검돌 하나 하나를 놓았을 뿐입니다. 작년 연말에 2020년을 준비하는 교육백서가 발간됨으로 그 교육백서를 중심으로 올 한 해 다음세대 교육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도 현장성이 뛰어나게 진행되리라 기대케 되었습니다. 물론 교육백서는 매년 수정 보완되어 발전되어 가겠지만, 작년 연말에 교육백서가 발간된 것은 내일의 다음세대 교육에 새로운 이정표가 열린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리



고 올해부터는 교구와 교회학교와 가정이 연계되어 목양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구-교회학교-가정”이 연계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양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양과일인 ‘디모데’를 교구 목사님들이 교육전도사님들과 공유하며 심방을 비롯해서 교회사역 상황을 함께 나누며 사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실제적으로 다음세대가 교회사역의 중심으로 들어오도록 사역방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한두 해에 이 사역이 정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역 방향을 분명히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서 “교구-교회학교-가정”의 연계사역이 뿌리를 내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주된 사역 방향으로 삼고 있는 주님의교회에서 “유유청청” 등 미래세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다른 한편 교회 내 구성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버 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사역을 계획하시고 계신지요?

당연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에 두 가지 주제로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하나는 아이들 신앙 교육 때문에 수평 이동해 오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동네의 작은 교회에는 교육부서가 부실하거나 없어서 아이들 신앙 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교회의 교인들도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서 가능할 신앙교육과정 개발을 부탁드렸고, 다른 하나가 바로 실버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

무엇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정,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 일은 믿음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치 교회학교와 같이 실버 세대를 위해 제대로 구성된 신앙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실버 세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교육과정은 1월 안에, 그리고 실버 세대용 교육과정은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교회의 지난 30년간 있었던 주요 사건 가운데 아마도 20년 전 정신학원과 맺은 동행의 관계는 몇 손가락 안에 꼽힐 때 우 중요한 전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유청청 리바이벌”과 관련하여 정신학원과 좀 더 긴밀한 협력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구상이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학원과 주님의교회의 동행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교회는 정신학원과 동행을 시작함으로써 다음 세대, 특히 청소년세대를 향한 실질적인 교육 사역과 선교사역을 시작해 되었습니다. 유유청청 리바이벌(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선 정



신학원은 우리와 한 가족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서 정신학원과 관계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기존의 기도어머니 사랑어머니, 멘토와의 만

남을 비롯해서 작년부터 시작된 정신포럼 등등을 통해서 협력의 장들을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학원과 주님의교회는 가족이라는 이 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확고하면 두 그룹의 더 긴밀한 협력과 상생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고, 서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관계에까지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정기적 부정기적 협력과 상생은 계속 발전 되어가고 더 친밀해져 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그룹이 타인이 아니라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확실하게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엔 한 가족의식을 보다 실제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새롭게 하게 될 사역 가운데서도 준비도 훈련도 보다 철저하게 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사역의 중심엔 “큐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큐티”나눔을 통해 우리 교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새해의 큐티 사역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상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을 큐티하는 사람이라고 칭

합니다. 제 일상 속에 특별한 일정이 오전 9시 전에 없으면 오전 9시 전에 저는 우리 교회 묵상집인 ‘주님과 함께’의 순서대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후배들인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오전 9시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교역자 단톡방에 그 날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와 매일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장로님들도 열 분이 넘으시고, 임직자들이나 피택자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매일이나 일주일에 수차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며 사시려고 씁니다. 아직 많은 교우들이 함께 갈 그 길은 멀지만, 이미 적지 않은 교우들이 일상 속에 말씀을 묵상하는 좋은 습관들을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남편의 변화된 얘기, 아내의 변화된 얘기, 아빠 엄마들이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자녀들의 얘기도 들립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정,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 일은 믿음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저는 변함없이 큐티하는 제 자리를 잘 지켜가길 원합니다. 제가 제 자리를 잘 지켜가면, 제 주변에서 함께 동역하는 후배 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또 함께 동역하는 장로

님들이나 리더들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기 원하실 터이고, 또 장로님들과 리더들 주변에 함께 동역하는 분들도 그 분들의 삶을 통해 도전받고 용기를 얻어서 믿는 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눈에 확 드러나는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특별하거나 두드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일상적인 삶을 통한 서서히 나타나는 변화를 추구하며 올 한 해도 사역현장을 잘 지켜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는 주님의교회 공동체에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힘든 세상살이지만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조금은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과 열심이 작은 열매라 하더라도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교회 교우라는 자부심이 세상 속에서 삶으로 드러나서, 교우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준비된 질문이 서너 개 남았지만 예정한 시간이 지나, 다른 일정이 기다리고 있어 아쉬운 마음을 접었다. 이 많은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주님의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기도한다.

함글함글

교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양코르 연재) > 기도 용어 편 7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여 불러서는 안 된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

우리말 어법에서는 듣는 사람이 최상위자일 경우 다른 어떤 인물에게도 존대어를 쓰지 않는다. 예컨대 “아버지, 누님이 오셨어요”하는 것은 옳지 않은 표현이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듣는 ‘아버지’는 ‘누님’보다 더 손위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아버님, 누나가 왔습니다”하고 말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최상위자이시므로 다른 어떤 인물에도 존칭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는 “우리 목사님께”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원칙은 로마가톨릭의 기도문에서도 확인된다. 예컨대 성만찬기도 제3양식에서 ‘중보의 기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님, ...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아무개와 저희 주교 아무개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 굳건하게 하소서.” 이 기도문에서 “교황님” “주교님”하고 호칭하지 않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란 표현보다 “저희들”, “우리 목사님께”라는 표현보다는 “주께서 세우신 사자(使者)에게”, 또는 “주님의 종에게”라고 하는 것이 옳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 함글함글 정리

신년특집 **이와나**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II)

변화와 다짐으로 맞는 새해

2020년의 새해가 밝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의 주제도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로 정해졌다. 2019년 12월 31일 밤에 드러진 송구영신 예배에는 어느 해와 다름없이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맞겠다는 마음으로 어두운 일을 달려온 성도들로 가득했다.

연속된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마도 인간의 특성일 것이다. 올해, 주님의교회는 2020년을 맞아 여러 가지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창립정신을 돌이켜보면서 집짓는 느꼈던 마음을 다잡는 일일 것이다. 2020년을 앞둔 지난해 10월의 정책당회에서 교회는 지난 30년을 되돌아보

면서 특히 방만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사역부서로 인한 예산의 과한 지출, 그리고 그런 관행에 따라 언젠가부터 헌신과 내핍의 정신이 희미해진 스스로에게 경종을 울리는 결정을 내렸다. 사역부서를 줄이고, 봉사자들의 내핍을 요청하는 이번 결의안은 그래서 주님의교회 공동체 모두의 다짐을 요청하고 있다. 일상의 삶에서 모범을 보일 당회원들과 함께 공동체 모두가 그 변화를 기꺼이 수용해야 마땅할 일이다. 이와 함께 새해들어 명예권사 제도가 생겼다. 오래 교회에서 봉사했음에도 사람들의 눈에 띄이지 않아 권사 피택을 받지 못했던 70세 이상의 집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려 명예권사로 임명하는 제도이다. 2020년에는 20분이 명예권사로 임명되었다.

2020년 교회 행정을 총괄하는 서기장로는 손천숙 장로가 임명되었다.

함즐함울

교회 소식

성탄 찬양 예배

지난 해 12월 25일 낮 12시 30분, 주님의교회 대예배실에서 성탄찬양예배가 드러졌다. 시온찬양대와 주오오케스트라가 주관하여 진행된 2020 성탄 찬양 예배에서는 2000년 전 예수님 탄생을 맞아 하늘에 울려 퍼졌던 천

사들의 노래와 같이 아름다운 화음이 성탄절 잠실을 가득 채웠으며,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전 교인이 함께 찬양하면서 성탄을 찬양했다.

함즐함울



교회 소식

교회 대예배실 배너 교체

지난 1월 4일, 크리스마스와 송구영신 예배를 장식했던 본당 교단 양쪽의 배너가 새로 교체되었다. 이번에 걸린 배너는 새해부터 부활절까지 걸려 있게 된다.

이번 배너는 청색, 자색, 홍색의 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막의 지성소 휘장의 색깔과 같다.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출 26:33)이 청·자·홍의 천으로 만들어졌다.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가운데가 찢어져(눅 23:45)의 미가 크다. 청·자·홍색의 천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수 놓아 장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출36:37)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님의교회 배너의 제작과 관리에는 예배부 미술팀(팀장 강정임 권사) 소속 팀원들이 협력해서 담당한다. 본당에 설치된 배너는 가로 3m, 세로 6m의 크기이며 각각 3가지 색의 천을 이어서 제작했다. 이번과 같은 배너의 제작은 디자인 - 담임목사의 승인 - 천 구입 - 재봉 등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천의 재질과 색상을 서로 맞추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보통 제작하는 데에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에 걸린 배너에 쓰인 천은 덴마크에서 수입한 천이며 방염처리 되어 있다. 약 4년 전에 제작해서 절기에 맞추어 쓰고 있는데 여러 배너 중 가장 반응이 좋다고 한다.

함즐함울



교회 사역 조직 122개 부서에서 97개 부서로 개편

창립 정신 살리기 위한 결의문 채택

**창립 32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적인 창립 정신 실천 방안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 될 것**

주님의교회의 사역 조직이 2020년 1월부터 기존 122개 부서에서 97개 부서로 개편되었다. 지난 10월 25일의 정책당회에서 교역자와 시무장로로 구성된 당회원 모두는 주님의교회의 지난 역사 30년을 돌이켜보면서, 교회 창립 정신을 새롭게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재정의 50%를

대외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기로 한 창립 정신의 실천이 날로 늘어나는 사역 조직에 소요되는 예산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데 생각을 모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당회는 사역부서 조직 간소화하고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며, 목회 목적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교회의 사역은 교인의 헌신과 재능으로 진행하고자, 봉사에 대한 식, 간식비 등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절감하기로 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결의안으로 정리하

기로 결정했다. 이 결의안은 11월 17일의 11월 당회에서 조직 변경안과 함께 채택되었으며, 12월 8일의 당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의안을 확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변경안 등 여러 실천방안이 결의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 122개 부서였던 교회 사역 조직은 부서의 통합을 통해 97개 부서로 축소되었다. 또한 사역할 때 봉사자에게 제공되던 관련 식대도, 주일 국수가 제공되어 이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하여 재능과 헌신으로 봉사하

여야 하는 교회 사역 정신에 충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당회 스스로도 이런 실천 정신을 엄격하게 준수하기로 하여 시무장로가 시무를 마친 후 은퇴 시에 제공되는 교회선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의했고, 현재의 시무장로가 교회장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회로부터 일체의 경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당회에서는 이밖에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당회 결의문은 아래와 같다.

함글함글

결의문

지난 10월 25일 2020년을 위한 정책당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30년의 주님의교회 사역을 돌아보며, 새롭게 주시는 시간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이어가기 위하여 당회는 자신에게는 엄격함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다음

1. 사역부서 조직을 간소화한다.
2. 본질적 사역에 집중한다.
3. 목회 목적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교회의 사역은 교인의 헌신과 재능으로 진행한다.
4. 봉사에 대한 식, 간식비 등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절감한다.

2019년 12월
주님의교회 당회원 일동

2019년 12월 8일 정기당회에서는 위의 결의를 2020년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1. 조직의 간소화
2019년 교회는 122개의 부서가 활동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25개 부서가 줄어든 97개로 사역하기로 하다.
2. 경비절감
 - 국수가 제공되는 경우 봉사자에게 제공되던 관련 식대를 지원하지 않기로 하다.
 - 시무장로가 시무를 마친 후 은퇴 시에 제공되는 교회선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다.
 - 현재의 시무장로가 교회장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교회로부터 일체의 경비를 받지 않기로 하다.

그리고 당회는 이후 본 결의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신년 특집 | 신임 교역자 소개

새로 오신 교역자를 소개합니다

가정을 신앙의 주체로 삼는 두 번째 해인 2020년을 맞아 역량 있는 교역자들께서 주님의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신임 교역자 열 여섯 분을 소개합니다. 창립 정신을 새롭게 다지고자 하는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가나다 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김세연 교육전도사
청년숲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2월 첫주부터 주님의교회 청년부를 섬기게 된 김세연 전도사입니다! 먼저 주님의 교회 청년부로 저의 첫 사역지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행하고, 겸손하게 코람데오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세, 태울 연. '성령의 불로 세상을 불태워라'라는 저의 이름의 뜻처럼 저의 사역의 기간 동안 주님의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곳을 성령의 불로 불태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정을 세우는 귀중한 일



서예림 전도사
유아숲 전임

주님의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와 가정을 세우는 귀중한 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실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며, 언제나 사랑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공동체를 꿈꾸며 감사와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린이 성도님과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경민 목사
유소년숲 부목사

안녕하세요? 2017년 9월부터 주님의교회 전임교역자로 섬기다가 작년 12월 22일부로 유소년숲 담당 부목사로 부임한 손경민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순수한 꿈을 간직한 어린이 성도님과 함께할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주님의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선 자율적 인간,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는 인간, 타자를 환대하는 인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인격을 갖추며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초등학교생들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심다영 전도사
유소년숲 준전임

초등학교 시절, 처음 교회에 출석한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중에 예배와 성경학교를 통해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 감동은 제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난 십여 년 간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그때의 감동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겨왔고, 계속해서 섬기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게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였듯이, 저 역시 초등학교생들의 그런 친구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품처럼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양기훈 전도사
청소년숲 전임

다음 세대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중등부 양기훈 전도사입니다. 입시경쟁에 처음으로 던져진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지 전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학원 같은 교회가 아닌,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품처럼 따뜻하고 쉽고 힘을 얻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청소년기를 보내며 작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길 꿈꿉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진심으로 성도를 섬기겠습니다



윤경수 목사
교구 부목사

안녕하세요. 주님의교회에 부임한 7교구 담당 윤경수 목사입니다.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는 주님의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며 머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는 목회자가 되길 원하며, 현실에 안주하거나 관습에 매몰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진심으로 성도들을 만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대혁 목사
교구 부목사

샬롬~ 올해 주님의교회에 부임한 이대혁 목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만큼 우리 주님의교회 성도들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중보하면서 성실하게 섬기겠습니다. 모든 주님의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 ^^♡

성령 충만한 예배와 믿음의 유산이 흐르는 가정



이보라 교육전도사
유소년숲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의교회 교육부가 성령 충만한 예배, 믿음의 유산이 흐르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겠습니다



이요안 교육전도사
청소년부

주님의교회 가족 공동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중등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자 합니다. 부족한 전도사이지만, 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완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이 4대에 이를 수 있도록 섬기겠습니다



이지형 전도사
교구 전임

지난 2년 동안, 기쁨으로 섬겼던 젊은이교구를 계속해서 섬길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그리고 담임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소망하며 권면하시는 큐티를 제작하는 큐티사역부와, 가정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며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도록 도우는 BPC를 전임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신앙이 4대에 이르기까지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는 사역자



이진명 전도사
목양실 전임

2018년 12월부터 청년부에서 섬기고, 2019년 12월부터 목양실에서 전임전도사로 사역 부서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또 다른 곳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많고 때때로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보내셨음을 믿고 낮은 자리에서 부지런히 섬기고, 맡겨 주신 일 잘 감당하는 사역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며 섬기는 사역자로



이충만 전도사
청년부 준전임

안녕하세요. 주님의교회 청년부를 섬기게 된 이충만 전도사입니다. 치열한 고민과 맞닥뜨리는 현실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나누며 섬기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균형 있는 목회자로 청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구민 목사
청년부 부목사

인사드립니다. 청년들과 함께 웃고 울고자 하는 정구민 목사입니다. 청년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뜨거워지는 마음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타고 꺼지는 불이 아닌 뜨거움이 지속되는 숯불과 같은 열정으로 주님의 교회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식에 열정을 더해 머리의 뜨거움이 가슴으로 내려와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함께 힘을 다하여 사용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사랑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정우림 교육전도사
청소년부

주님의교회 공동체로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등부를 섬기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한 고등학생 시절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첫 감격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사랑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통로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언제나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발견하는 믿음의 모험



정지인 전도사
어린이EM 준전임

안녕하세요, 정지인 전도사입니다. 2019년 1년간 주님의교회 EM 아동부서를 섬기면서, 제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주님의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역자들의 성실과 헌신 그리고 성도님들의 몸을 아끼지 않는 봉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새해인 2020년에는 주님의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발견하는 믿음의 모험을 하고 싶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영찬 전도사
청소년부 전임

주님의교회 고등부 조영찬 전도사입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방황하던 청소년 시기에 교회 전도사님을 정말 잘 만나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그때부터 청소년 사역자가 되는 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왔습니다. 정체성이 혼란할 수밖에 없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기나들이



박이준 아기

2019년 7월 17일생

1. 이준이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2.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3.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랑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아빠 박현지 집사 / 엄마 서민경 성도, 2019년 12월 15일 3부 예배



이서현 아기

2019년 5월 23일생

1.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지혜롭고 건강하고 슬기롭게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 흙처럼 겸손하게, 꽃처럼 아름답게, 벌처럼 성실하게, 만민에게 사랑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빠 이도훈 성도 / 엄마 김지혜 집사, 2019년 12월 22일 3부 예배

사역 단신

군경 선교부에서 성탄 위문품 전달



12월 10일 월요일 국내 선교분과 위원회 소속 군경선교부에서는 주님의교회 성도로 군입대자 및 19년도 진중세례를 거행한 사단별 진중 세례 참석자 중에 송파 인근 거주자 대상으로 60명에게 성탄 선물을 전했다.

국내선교부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에 제1집회실에서 입대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가진다. 전후반기 모두 6회에 걸쳐 6개 사단 신병교육대대 진중 세례예식을 후원한다.

2019년에는 1091명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2000여명이 예배에 참석을 하였다. 전방대대급 교회에서 사역하는 민간 교역자 8곳과 송파 경찰서 경목교역자와 군선교 연합회등 10곳에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며 군경복합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함줄함울

모십니다

아직도,해저무는장터에서 서성이고 계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오갈 곳 찾지 못해 서성이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 따라 낮아지고 싶은데, 자꾸만 높아져 고민이십니까?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7대미션이 막막하게만 느껴지십니까? 그 가난한 심령에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교회 유소년부는 “어린이” 성도님의 연령에 따라 유년부(1,2학년), 초등부(3,4학년), 소년부(5,6학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는 주일예배 시간에 따라 1부(오전 9~11시)와 2부(오전 11~1시)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모든 부서에는 반 담임, 찬양 / 반주, 임원단(총무,서기,회계), 자원팀 등으로 함께하실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유소년부 선생님은 단순히 가르치고 섬기는 봉사자가 아닙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순수함과 깊이를 배웁니다. 아이들과 교제하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갑니다.

유소년부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비록 줄기 가늘고 키 작지만 땅 위에 넓게 퍼진 겨자풀처럼, 유소년부의 시원한 그들은 모두에게 넉넉하게 열려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주님의교회 “어른”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 손경민 목사(010.2799.5006)

알립니다

교회 캘린더 선정작을 발표합니다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에서는 2020년 교회 슬로건인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에 맞추어, 2020년 캘린더의 주제를 ‘가정’으로 정하고, 함줄함울 제 416호(2019. 11. 10)를 통해 캘린더에 수록할 그림을 공모한 바 있습니다. 11월 24일 마감한 결과 많은 어린이들이 훌륭한 그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중 예선을 통과한 25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미디어관리위원회의 담당 장로, 교역자, 교인 대표가 12점을 선정해서 캘린더에 수록했습니다. 모두가 멋진 작품이어서 고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만, 되도록 다양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을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종 선정작: 김태연, 정하준, 장희원, 김세림, 황정민, 이예은, 진승주, 이예찬, 어승혁, 배현진, 이시우, 송세희 (캘린더 수록 순서)

최종 선정작을 그린 어린이들에게는 소박한 선물을 담당 교역자를 통해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응모해주신 모든 어린이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출판부

알립니다

1. 2020 신입 서리집사 대상 교육

대상 : 만 30세 이상, 세례(입교) 및 교회등록 후 1년 이상
교육 : 1/12, 19(주일) 2회 오후 2:00~3:00 소예배실(1층)
교육에 꼭 참석하셔야 서리집사에 임명됩니다.

2. 비전트리(고등부) 겨울수련회

일시 : 1/17(금)~19(주일) 다목적관(5층)
문의 : 조영찬 전도사(010.9442.6708)

3. Blessing 남성기도 모임(1월)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블레싱 남성기도 모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제목 : 다시 꾸는 꿈, 하나님 나라 / 본문 : 계 21:1-4
일시 : 1/18(토) 오전 7:00~8:00 제3집회실(1층)
문의 : 한시영 목사(010.8935.5048)

4. 2020 어와나 신입 단원 및 교사 모집

일자 : 1월 12일, 19일(2주간)
장소 : 1층 로비 데스크
대상 : 커비단(5~6세), 불티단(7~9세), T&T(10~13세), Trek(14~16세)

5. 성지 순례 모집

일정 : 4/13~24(금)
대상 : 양육클래스 성지순례수로 및 성지순례특강 참여 가능자(1월중)
문의 : 이은석 목사(010.4417.9779)

6. 2020 우리가정 기도제목 카드

일자 : 1/19(주일)까지 비치된 함에 넣어주세요.

7. 휴무 및 방학 안내

도서실 : 1/31(금)까지 (주일은 정상 운영)
전화상담실 : 1/31(금)까지
실만찬물가 : 1/31(금)까지